



ASIA WEEK REVIEW

매년 3월, 뉴욕에서는 동양 고전미술을 위한 아시아 위크가 개막한다. 뉴욕에서 동양 고전미술은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과 구매자를 맞을까?

경매에서 소개되는 17세기 중국 탁자, 의자, 양초꽃이를 요세프 알버스 페인팅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크리스티 경매 아시아 부사장 신리



(마리 테레사 L. 비라타 아시아 미술 컬렉션: 기문의 유산)은 3월 16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열렸다
Photo Visko Hatfield Courtesy of Christie's

매년 3월 뉴욕의 아모리쇼 주간이 끝나고 홍콩의 아트바젤이 시작되기 전, 유럽에서는 고전미술 전문 페어 '테파프 마스트리치', 뉴욕 맨해튼에서는 '아시아 위크'가 시작된다. 아시아 위크는 말 그대로 동양 미술 특히 동양 고전미술을 위한 주간으로 소더비, 크리스티 같은 경매 회사에서 동양 고전미술품 경매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미술관들은 동양 미술과 관련한 전시를 개최한다. 뉴욕뿐 아니라 런던, 파리,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날아온 50여 개의 갤러리들은 맨해튼 중에서도 특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위치한 퍼포리스트 사이드에 등지를 틀고 크고 작은 전시를 열어 자신들이 가져오는 보물을 자랑한다.

아시아 위크는 2009년에 약 20여 개의 뉴욕의 갤러리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던 2009년 파크 애비뉴 아모리에서 열리던 동양 고전미술 아트페어는 경제 불황으로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자 페어에 참가하던 뉴욕의 갤러리들이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자 모임을 만들어 함께 전시를 열고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였던 'Asian Art Dealers of the Upper East Side'가 후에 'Asia Week New York'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이제는 뉴욕에서의 동양 미술에 대한 관심과 위상도 차츰 높아짐에 따라 참여하는 갤러리와 미술관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아시아 위크 뉴

욕에서 보도된 매출액은 1천3백억원이었다.

"동양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시아 위크 기간에 꼭 뉴욕에 와야 합니다." 맨해튼의 일본 미술 전문 딜러 존 머비스(John Mirviss)가 말했다. 아시아 위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갤러리들은 대중보다도 특정 소장 컬렉터나 미술관 큐레이터들을 겨냥하고 미술관에 소장될 만한 수준 높은 국보급 작품들을 전시한다.

덕분에 미국 전역 혹은 유럽의 동양 미술과 관련된 큐레이터들은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아시아 위크를 위해 뉴욕으로 출장 오게 되는데, 다른 때보다도 이 기간에 미술관을 위한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종종 큐레이터들이 중요 인사나 후원자들을 단체로 이끌고 와 갤러리 투어를 하면서 미술관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사실 아시아 위크에 참여하는 많은 고미술 갤러리들은 평소에도 미리 딜러와 약속을 잡는 형식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미술을 사랑하는 일반 대중이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아시아 위크 동안만큼은 오픈하우스 형식으로 원하는 누구나 와서 편하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다. 게다가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수준 높은 고미술 작품들을 다소 친밀한 환경에서 갤러리로부터 친절한 작품 설명을 들으며 감상할 수 있다.



1 명나라 영락제 시대의 청화백자, 15세기 Courtesy of Sotheby's 2 첸롱, '여섯용들', 두루마리 종이에 수묵담채, Image Courtesy of Christie's 3 '밤의 테라스에서 왕자와 그의 정부', 팔레트 지역, circa 1760, Image Courtesy of Oliver Forge and Brandon Lynch Ltd, 4 가츠시카 호쿠사이, 후지산 36경 시리즈 중 '쾌청한 조여름의 산들바람'(飈風快晴), 1831, 색 목판화, 25.1×37.1cm Image Courtesy of Sebastian Izzard LLC 5 가츠시카 호쿠사이, 후지산 36경 시리즈 중 '가나가와의 큰 파도'(神奈川沖浪裏), 1832, 색판화, 25.1×37.1cm, Image Courtesy of Sebastian Izzard LLC



한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관에서 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으로 <Splendors of Korean Art> 전이 열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에서 대역한 국보급 문화재 13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한국 미술의 대표 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고전미술 전문 갤러리 강콜렉션은 조선시대 불화와 신라 토기, 보자기 외에도 이우림, 김중숙 등의 현대미술을 함께 전시했다. 페이스 갤러리는 이우환이 파리 외곽의 역사 깊은 아틀리에에서 2년 동안의 레지던시 기간 동안 제작한 도자기 신작을 선보였고, 티나킴 갤러리에서는 정서영의 개인전이 열렸다. 특히 이번 해에는 오랜 기간 뉴욕 크리스티 경매의 한국 미술 스페셜리스트였던 김혜겸이 김창렬, 구본창, 김자섭의 작품과 함께 처음 아시아 위크에 참여했다.

일본

올해 40주년을 맞은 일본 전문 미술 갤러리스트 조안 머비스(Joan B. Mirviss LTD)는 중국이나 한국과는 다른 일본 미술의 미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도자기를 예로 들자면, 중국 미술은 완벽함 혹은 완벽한 대칭을 추구합니다. 어떠한 작은 결점이나 실수도 용납되지 않죠. 일본은 반대에요. 불균형함 혹은 결점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저 도자기를 보세요. 흐르는 초록색의 유약 자국을 그대로 살려 작가가 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79번가와 5번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인스티튜트에서 열린 JADA(Japanese Art Dealers Association)의 전시에서는 크리스티 경매 전 부사장이자 일본/한국 미술부 대표였던 세바스찬 이자드(Sebastian Izzard LLC)가 일본 전통 미술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인 가츠시카 호쿠사이(Katsushika Hokusai, 1760-1849)의 후지산과 파도 우키요에 목판화를 선보였다. 그에 따르면 이번 아시아 위크 기간 몰아친 눈보라 때문에 많은 경매장 및 전시장이 문을 닫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판화와 특히 도자기에 있어 성공적인 판매를 이뤘다고 밝은 목소리로 전했다. 일본 교토에서 일본 전통화랑을 운영 중인

아버지를 이어 2대째 아트딜러로 보다 국제적으로 활동 중인 고이치 야나기의 갤러리(Koichi Yanagi Oriental Fine Arts)에서는 타이라 가의 흥망을 담은 에도시대의 80폭 화첩이 전시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에지노프 갤러리(Egenolf Gallery Japanese Prints)는 76가 갈라일 호텔의 한 방을 빌려 전시를 열었는데 타이쇼시대 목판화로 유명한 가와세 하스이(Kawase Hasui, 1883-1957)의 판화 중 '아타고산의 봄' 외에도 평양의 모습을 담은 목판화를 소개했다.

중국

이번 아시아 위크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크리스티 경매에서 소개한 마리 테레사 L. 비라타의 아시아 아트 컬렉션일 것이다. 필리핀의 비라타 가문이 3대를 이어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가구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중국 및 유럽 미술품들을 수집한 유명한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국가대표 농구 선수, 모델 등 다채로운 이력과 원철한 키에 동양적인 마스크를 가진 크리스티 경매 아시아 부사장 신리(Xin Li)는 고미술을 장 뒤비페, 조셉 알버스, 샘 프랜시스, 쿠사마 야요이 등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과 어떻게 매치해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신리에 따르면 명나라 시대 가구의 매력은 “명상을 부르는 ‘젠(Zen)’ 정신과 선과 형태의 순도가 전부”인 점이다.

일본 후지타 미술관 컬렉션에서 나온 중국 미술품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였다. “이 경매에 나오는 청동기 네 점과 여러 그림들 - 특히 송나라 첸롱(13세기의) ‘여섯 용들’ 족자와 리공린(1049~1106)의 족자- 은 어떤 시대, 나라, 소재를 막론하고 올해 아시아 위크의 동양 미술품들 중 가장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박물관 명예 큐레이터이자 크리스티의 시니어 컨설턴트인 로버트 마우리 박사(Dr. Robert Mowry)는 말했다.

인도 · 이슬람 · 히말라야

이슬람과 인도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두 딜러 올리버 포지와 브랜든 린치(Oliver Forge and Brandon Lynch Ltd.)도 매해 3월 어김없이 영국에서 아시아 위크를 방문한다. 82가의 오래된 타운하우스 1층, 아담한 공간에 전시된 손바닥만 한 사이즈의 페인팅들은 바느로 그린 듯 너무나 정교하며 경이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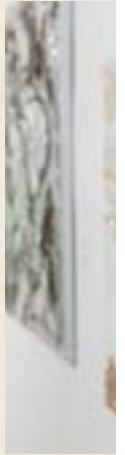


강콜렉션에서 강금자 대표

고미술을 알리는 사명

맨해튼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정문에서 스무 발자국 걸으면 달을것 같은 거리에 강콜렉션이 위치해 있다. 30년 넘게 한국 고미술 갤러리 강콜렉션을 이끌고 있는 강금자 대표를 아시아 위크에서 만났다.

지난 2월 L.A. 카운티뮤지엄(LACMA)에서 '한국 가구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상황리에 마쳤다고 들었다. 지난 36년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계에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는데, 1981년 처음 갤러리를 시작하고 6개월 넘게 손님이 없어 너무 힘들 때 한 백인 신사가 들어와서 갤러리를 둘러본 후에 한다는 말이 "한국 미술이라는 것이 존재하냐"고 비꼬듯이 물었다. 그 당시에는 미국 어떤 미술관에도 한국관은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 미술품으로 민화와 가구, 고려자기만 조금 있을 뿐 조선시대 문인화, 조선자기, 병풍 등은 거의 없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 미술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통탄스러웠다. 스미소니언의 프리어 사클러 갤러리를 방문했을 때, 한국 미술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15세기 경상도에서 나온 농부의 밥그릇을 전시장 정가운데 커다란 유리 속에 하나 넣어 전시해놓았다. 그걸 보고 바로 큐레이터 루이스한테 가서 야단을 쳤다. 한국 미술은 극소수의 관중, 일본에서 다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 조선의 막사발을 이도다완(井戶茶碗)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다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긴다. 특히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 좋아했고 공로 있는 장군들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아직도 일본에서 이도다완 진품이 나오면 값이 많이 나간다. 루이스는 도자기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인데, 내가 한국에 17~18세기의 달항아리나 18세기의 청화백자 같은 훌륭한 도자기가 얼마나 많은데 한국 미술이 이게 전부 아니라고 난리를 쳤더니 그 여자가 가만히 들으며 노트에 메모를 하더라. 후에 루이스는 나의 말을 한 귀로 흘려 듣지 않고 강콜렉션에서도 도자기를 많이 구입하였으며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강인한 여성이며 한국 미술 딜러계의 선구자"라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한국관 큐레이터 이소영은 짧고 굵게 강금자 대표를 소개했다. 하버드 대학 박물관 명예 큐레이터이자 경매사 크리스티의 시니어 컨설턴트인 로버트 마우리는 "강금자 씨는 한국의 문인화 혹은 신라자기, 분청 등 다양한 한국 미술을 딜러로서 서양에 처음 소개한 사람이다. 예전에는 미국 박물관의 중국관에 고전미술, 궁중미술이 전시되어 있었다면 한국관에는 민화만 있었다. 마치 민화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녀 덕분에 최근 20년 동안 미국과 유럽 미술관들의 한국 컬렉션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뉴욕에 '한국 미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1981년, 그녀는 맨해튼에 강콜렉션을 세웠고 36년이 지난 지금도 해외에서 한국 고미술 전문 갤러리로는 유일하게 굳건하게 서 있다.

2016년 한 해에만 클리블랜드 미술관에는 석파 이하응(홍선대원군)의 묵란화 병풍,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에는 19세기 화가 같은 오남운의 포도 병풍, 발티모어 미술관에는 20세기 책거리 병풍 등이 강콜렉션을 통해 소장되었다. 한때는 뮤지엄들로부터 '병풍 레이디(Screen Lady)'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갤러리의 주 고객은 미국과 유럽의 큰 미술관이다. 언제부터 미술관을 상대로 일하게 되었나? 1981년 1월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한국 미술의 5000년사〉전을 할 때 미술관으로부터 두 블록 떨어진 타운하우스 2층에 프라이빗 갤러리를 무작정 냈다. 그때는 미국에서 프라이빗 갤러리를 내는 것이 유행이었던 때다. 물론 그 당시 나는 미술계에 인맥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직접 손편지를 쓰고 사진을 조금 마하게 붙여서 미국 전역의 큐레이터에게 보냈다. 지금 생각하면 글씨도 문체도 엉망진창이었는데 놀랍지 않게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당시 〈뉴욕 타임스〉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이 〈뉴욕 타임스〉에 손바닥만 하게 광고를 내는 것이었다. 광고비가 3천 불했는데 당시 아파트 두 달 렌트 값 정도 되는 큰 돈이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한국 미술의 5000년사〉의 전시를 책임졌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일본 미술 큐레이터 줄리아 미치가 찾아와서 김해 지방에서 나온 3~5세기의 가야 토기를 아주 비싼 값에 사갔다. 이 사람이 나의 첫 고객이 되었다. 그 후 줄리아가 다른 미술관의 큐레이터들을 나의 갤러리로 데리고 왔고 차차 그들도 내 고객이 되었다.

강콜렉션을 통해 판매되는 많은 미술품들이 당신의 개인 소장이다. 어떻게 처음 한국 미술품을 소장하게 되었는가? 1963년에 미국에 와서 퀸스칼리지에서 서양미술사를 공부하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동양미술사를 공부했다. 1974년도에 시아버님 환갑 잔치 때문에 한국에 나왔을 때 인사동에 가서 동양미술사와 서양미술사를 공부한 눈으로 한국 장롱이랑 민화들을 보는데 오르가슴이 왔다.(웃음) 두 번 생각 안 하고 3천 불을 투자하여 장롱과 민화를 잔뜩 샀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아예 한국 가서 살자고 6개월쯤 줄랐다. 결국 1978년에 이사를 갔고, 3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미친 듯이 고미술 시장을 쫓고 다녔다. 그때 남편은 경희대 교수로 일했고 나는 한국에 있던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왕립아세아학회 한국 지부 리더로 활동하기도 했다.

미술품 딜러가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대학 때였다. 로마시대 미술사 수업을 듣다가 로마의 귀족들은 그 전 시대인 그리스의 미술품을 사가해서 열정적으로 수집한다는 내용을 공부하고는 난데없이 "이거더! 나도 아트 딜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미술 애호가들에게 작품을 팔면서 동시에 나도 그 작품들을 즐길 수가 있으니 아트 딜러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직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큐레이터 로버트 마우리는 소호 김응원의 묵란도를 당신에게 '간칭'해서 겨우 구입할 수

석파 이하응의 묵란도 병풍이 전시되어 있는 클리블랜드 뮤지엄 한국관 전경
Image Courtesy of Cleveland Museum of Art





1 화조도 8폭 병풍, 조선시대 Image Courtesy of Harvard Art Museums
 2 크리스털로 제작된 김종수의 'Golden Picture', 2014
 3 전통 도자와 배궚모 전시 전경
 4 데이브 김의 현대화 문자도와 고전 문자도, 20세기 백자도 병풍이 함께 어우러져 전시되어 있다

있었다고 말했다. 아끼는 그림이라며 안 팔려고 했다면서, (웃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35년 전 처음 갤러리를 열었을 때 아름다운 민화 한 장을 팔고서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운 적이 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지식 여러 명이 있는데 자꾸 누가 하나씩 데러가는 꿈이었다. 아끼는 작품들을 팔아야 하는 내 심정 같았다. (웃음)
특별히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인가? 지금은 하버드 대학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8폭 연꽃 병풍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다. 물고기들이 노닐고 새들이 한 쌍씩 연꽃 위를 날아다닌다. 다산(多産), 복, 사랑을 기원하는 상징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연꽃 병풍 한 점도 호놀룰루 미술관에 오래전에 판매했다. 두 작품 모두 궁중에서 쓰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한다.

고미술을 다루면서 생긴 에피소드 하나 들려달라. 1995년쯤 일이다. 한국에 나갔을 때 통도사를 방문해 감로탱화 전시를 보고 감로탱화에 관한 두꺼운 책을 사 와서 읽었다. 미국에 들어왔는데 분헨츠 경매에 내가 방금 책에서 읽은 18세기 감로탱화가 나와 있더라. 경매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나는 그 작품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도록으로만 봐도 상태가 너무 좋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진품인 게 틀림없었다. 그때 추정가가 8천에서 1만 불이었는데 전화로 경매에 참여하였고 추정가의 10배인 8만 불에 낙찰 받았다. 남편 옆에서 내가 전화로 값을 계속 올리는 것을 듣고는 난리를 쳤다. 그러다 6개월 정도 후에 LACMA 큐레이터 키스 윌슨이 감로탱화를 보러 갤러리에 와서는 자기도 그때 경매에 참여했는데 3만 불까지 응찰했다가 포기했다고 했다. 지금 열매에 팔 생각이 있다고 해서 나는 8만 불에 샀지만 50만 불에 팔겠다 했다. 나중에 피델리티 자산운용사 회장인 네드 존슨이 갤러리에 와서 그 작품을 보고는 너무 좋라며 그 앞에서 춤을 추더라. 결국 그가 피버디 에엑스 미술관이 50만 불에 그 작품을 구입하도록 후원하였다. 감로탱화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제작되었던 독특한 불화이다. 특히 그 그림은 화려하고 디테일이 굉장히 정교했으며, 공자사상과 불교사상이 절묘하게 드러난 작품이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중 한국 미술 컬렉션이 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미술관은? 영국 대영박물관,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사클러 미술관이다. 대영박물관의 한국관은 포괄적인 컬렉션으로 도자기, 병풍, 의상, 현대미술 등 골고루 좋은 작품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클리블랜드 미술관 또한 컬렉션이 좋은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미술관 중 하나가 때문이다. 한국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세브란스 패밀리가

이 미술관을 많이 후원했다. 강클렉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값이 비쌌던 작품들 중 두 점인 19세기 화가 이택균의 책거리 병풍과 흥선대원군의 묵란도 병풍이 클리블랜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교 사클러 미술관이다. 하버드 대학교는 약 10년간 중국 미술품을 팔아서 그 돈으로 한국 미술품을 사들였다. 물론 한 개인이 하버드에 자신의 중국 미술 컬렉션을 기증하면서 작품을 팔아도 된다고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세 미술관 모두 강클렉션에서 많이 사 갔다. (웃음)

중국과 일본 미술과는 다른 한국 미술의 독특한 아름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예로 들자면 중국 명나라의 청화백자와 우리나라의 청화백자는 너무나 다르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경기도 광주의 분원에 화가들을 보내어 백자와 청화백자를 만들게 했는데, 궁중화가들이 동그런 단지나 목이 긴 술병을 하나의 캔버스로 취급해서 그림을 그렸다. 플랫폼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단지와 함께 돌아가는 그림을 그렸던 거다. 궁중 화가였기 때문에 노련한 붓놀림으로 생동감 넘치는 임피어링처럼 그릴 수 있었다.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은 그라픽 디자인처럼 도식화된 평면 장식 같다.

한국 고미술은 세계 고미술 아트마켓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한국 고미술의 위치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미약하지만 한번 대히트를 친 적이 있었다. 1996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17세기 조선 옹무늬 철화백자가 도자기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인 약 8백만 달러에 낙찰되어 조선 백자가 세상에 제일 비싼 도자기가 된 것이다. 그 사실이 선풍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 후 계속 좋은 품질의 한국 청화백자들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낙찰되고 있다.

서울 혹은 한국에 오면 꼭 찾는 미술관이 있는지? 리움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이다. 특히 간송 전형필은 나의 영웅이다. 자신의 집 열 채를 팔아 한 작품을 샀다는 일화도 있을 만큼, 일본이랑 싸우면서 한국 미술을 지켜낸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감동적이다.

이곳은 맨해튼에서도 가장 명값이 비싸다는 어퍼이스트 사이트에 위치해 있고 뉴욕에서 지정된 보존 건물 지주이다. 같은 블록에는 모두 시가 1백억은 훌쩍 넘는 타운하우스들이다. 도대체 어떻게 매달 렌트비를 내고 있는가? 그렇게 장사가 잘되나? (웃음) 운이 좋았다. 모니카라는 건물 주인은 유대인 여성인데 자신의 이모에게서 이 건물을 물려받았다. 모니카의 이모도 유명한 미술상이었고 아래층에서 갤러리를 했었다. 모니카와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 가족같이 친해졌기에 지금까지도 매우 싸게 렌트해준다. 강클렉션이 이 건물에서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 **김/김다예(미술 칼럼니스트) 에디터/ 안동선**